예금 투자자 '반색'… 대출자는 '금리 年7%대 코앞' 울상

기준금리 0.25%p 인상

신한銀, 예금금리 최대 0.4%p↑
금리 오르면서 예적금 수요 늘 듯
가계 등 대출 차주 이자부담 가중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기존 1.0%에서 1.25%로 인상함에 따라 대출이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뉴시스

한국은행이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은행들도 예·적금을 비롯한 대출 금리를 잇따라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 예·적금 수요자와 대출자 간 희비가 예상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7일부터 정기예금과 적립식 예금(적금) 36종의 금리를 최대 0.4%포인트(p) 인상한다.

금리인상으로 신한은행의 '안녕, 반가워 적금'은 1년만기 최고 연 4.2%에서 4.4%로 0.2%p 오르고, '신한 마이홈 적금'은 최고 연 2.2%에서 2.6%로 0.4%p 오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에 맞춰 예·적금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게 됐다"며 "고객들의 안전한 자산관리를 위해 다양한 예·적금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18개 정기예금과 20개 적금금리를 최대 0.3%p 인상한다. 우리은행의 '슈퍼(Super) 정기예금'은 최고 연 1.45%에서 1.70%로 0.3%p 오른다. '우리 원(WON) 적금'은 최고 연 2.05%에서 2.35%로 인상한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은 예·적금 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시장 상황을 보고 인상할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인상 시점과 금리조정 폭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은행, 예·적금 금리 연 3%대 나오나

금리인상이 본격화하면서 은행 예·적금에 투자자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잔액은 1004조원으로 전달 대비 24조5000억원 증가했다.

정기예금 잔액은 744조1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4조7000억원 늘었다. 정기예금은 6개월, 1년 등 일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환급받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예탁하는 예금을 말한다. 지난 2019년 12월 -27조3000억원, 2020년 12월 -6조4000억원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주식이 대세이지만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어 올 1월까지 기준금리가 세차례 오르면서 은행 예·적금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고 있다"며 "올해 두차례 더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예·적금으로의 쏠림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기예금은 6개월~1년 만기, 적금은 1년만기 가입후 재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예·적금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만큼 만기기간을 짧게 두고 이율이 더 높은 상품으로 갈아타라는 것.

금융권 관계자는 "만기기간을 단기로 둔 예적금 상품을 통해 금리조정을 할 수 있다"며 "만기 이후 단기로 재가입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시장금리 조정을 일정한 주기마다 반영하는 회전식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회전식 정기예금상품은 3개월, 6개월, 1년 등 회전주기에 따라 변경된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예컨대 회전주기가 3개월인 연 2%의 금리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3개월 뒤 실제금리가 0.25%p 상승했다면, 상승금리가 적용돼 연 2.25% 금리로 조정된다. 만기가 1년인 정기예금이라면 3개월동안 변동된 금리가 적용돼 가입기간동안 총 4차례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변동금리→고정금리 유리

예·적금 금리 인상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나면서 대출금리도 순차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지난 14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변동금리(신규코픽스 기준) 연 3.57~5.07%이며, 고정금리는 3.75~5.51%이다. 신용대출 금리는 연 3.44~4.73%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7%, 신용대출의 금리는 6%대에 근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올해 최소 2차례 금리를 인상하고, 시장금리까지 오르면 은행들의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은행들은 여력이 되는 경우 대출을 상환하거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원화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신한은행 78%, 하나은행 75%, 우리은행 69%, KB국민은행 46% 순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면 대출 갈아타기를 고려해 볼 만 하다"며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는 만큼 대환대출로 발생할 이득이 수수료 부담보다 더 큰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코리아그랜드세일 무색' 텅 빈 명동 거리

2022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 후 첫 휴일인 16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의 빈 점포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여행객의 발길이 끊기면서 명동 상권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뉴시스

국제유가 고공행진… "100달러 넘을 수도"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미국 원유재고 감소 등 영향
올해 중 일시적 100달러 가능성

1월 중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원유재고가 줄어 들면서다.

16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1월 중 국제유가는 80달러 안팎 수준으로 상승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지난해 12월 초 큰 폭 하락했으나 미국 원유재고 감소, 미국·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등 주요 산유국의 더딘 증산 영향으로 반등한 것이다. 친환경 기조 확대로 미 셰일기업의 신규투자가 지연되고 있으며 최근 OPEC+의 증산량도 목표에 미달됐다. 일부에서는 OPEC+ 국가의 향후 추가 생산여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두번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0.5원 내린 리터당 1621.9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16일 오전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주요 기관은 국제유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원유 공급 제약이 심화될 경우 유가가 올해 중 일시적으로 100달러를 넘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타원자재가격의 경우 천연가스(네덜란드 TTF 거래소 기준) 가격은 전월보다 25.0% 하락했다. 반면 석탄(호주 뉴캐슬 거래소 기준) 가격은 8.4% 올랐다.

천연가스 가격은 미국의 대(對)유럽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증가 등으로 공급 우려가 완화되면서 감소세를 기록했다. 석탄 가격은 인도네시아의 1월 중 석탄수출 금지 조치 등의 영향을 받았다.

비철금속지수(1월 1일~12일 중 평균)는 전월 대비 4.1% 확대됐다. 알루미늄 가격은 유럽 지역 알루미늄 생산 축소 예상 등으로 전월보다 8.1% 상승했다. 니켈 가격은 전기차 생산 증가 등으로 전월 대비 6.0% 올랐다.

S&P 곡물지수도 전월과 비교해 1.0% 상승했다. 대두, 옥수수 가격은 남미지역 라니냐로 인한 작황 우려 등으로 각각 6.9%, 1.6%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직속 TF 만들고, 상용화 실증사업 '박차'

〉〉 1면 'UAM 상용화'서 계속

TF는 외부 파트너십, 전략, 사업, 서비스 개발, 인프라 기술, 솔루션 등 담당 임원이 정해졌고, 주 1회 정기회의에서 해당 임원들은 UAM 전략 관련 의사결정을 진행한다. 정부의 실증 사업은 물론 비즈니스 모델, R&D, 인프라 등 UAM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을 논의하고 있다.

SKT는 또 지난 2020년 결성된 국토교통부 주최의 산학연관 협의체인 'UAM팀 코리아'에 참여해 통신, 플랫폼, 관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 팀은 37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해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KT는 티맵모빌리티와 공동으로 차세대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도 제공하기로 했다. UAM 탑승 예약에서부터 철도, 버스 등 육상 교통수단과 환승 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KT는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모빌리티 역량을 바탕으로 모빌리티사업 진출 의지를 피력했는데, 그 중 하나로 UAM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UAM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대표 기업들과 힘을 합하고 있다. 국내 UAM 성공적 실현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현대차, 현대건설, 인천공항공사의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최근 대한항공이 추가로 참여했다.

이들 5개사는 UAM 생태계 구축 및 사회적 수용성 증대 활동 협력, UAM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 5사 UAM 사업 협력 로드맵 공동 추진 및 실증사업 협력, K-UAM 로드맵 공동 수행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KT는 UAM 통신 인프라 및 데이터 플랫폼 개발을 맡는다.

KT는 또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개최된 UAM 콘펙스(콘퍼런스+전시)에 참여해 'K-드론시스템(KTM)' 기술을 시연했다. 이 자리에서 KT는 K-드론시스템(UTM)을 활용해 인천국제공항 부근 관제권 내에서 비행 시연하는 2인승 UAM 기체 및 드론을 공항 관제시스템과 연계해 교통관리를 시행했다. 이는 기존 단일 UAM 비행체 비행관제에서 한 단계 진화된 기술을 선보인 것이다.

KT는 사람이 운행할 수 있는 항공기인 유인기, UAM 비행체,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등 여러 종류의 비행체를 인천공항 관제권에서 통합 관제할 수 있는 연동환경을 시연하는데 성공했다.

KT는 또한 지난해 12월 UAM 팀 코리아에 합류하며 UAM 사업 확장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UAM 사업에 참여하는 대신 드론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 쿼터니언과 함께 5G 기반 스마트드론 AI 차별화 솔루션 개발, 특화임무장비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LG유플러스는 드론 기체에 5G 이동통신과 원격제어 기능을 탑재했다. 스마트드론 서비스는 비가시권 관제 기능과 실시간 영상전송이 가능하며, 엣지컴퓨팅 기반의 AI 영상분석과 열화상 카메라를 활용한 AI 화재감지 기능을 탑재했다.

/채윤정 기자 echo@